정말로

강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강한 사람에 대하여

림 까우 (LIM KOU)

이 책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Truly Strong 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2014년에 첫출간 되었습니다
Copyright © 2014 by Lim Kou
ISBN: 978-981-09-0115-8

이 책을 부분적으로 인쇄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살아 있어야 하고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용이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저자를 분명히 알리고 *무료*로 배포할 경우에는 책 전체를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의사항과 아래 이어지는 다운로드에 관한 내용은 배포를 위해 책을 인쇄할 경우 언제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개역개정 4판 (New Korean Revise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1998, 2000, 2003, 2005).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Copyright © 2015 by Lim Kou
ISBN: 978-981-09-5981-4

이 책을 한국어로 출간하는 일에 참여한 형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료 다운로드
웹사이트 www.godandtruth.com을 방문하는 독자들을 환영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정말로 강한 사람*」을 비롯해 *Man of Faith, The Two Kingdoms, Understanding Job* 등의 책들과 설교 내용들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500편 이상의 오디오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feedback@godandtruth.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

머리말 1

서문 2

1장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3

2장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 14

3장
정말로 강해지려면 25

4장
정복하는 사람들 :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 37

5장
힘과 능력 : 개념, 문제점, 위험 51

6장
영적 경험과 영적 능력의 발휘 62

7장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과 일하는 방식 :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방식 75

책을 마치며 93

머리말

이 책 「*정말로 강한 사람*」은 내가 쓴 네 번째 책이며 이 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디어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쓴 첫 번째 책, *Understanding Job* (2003)에서는 욥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의미와 그 목적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쓴 책, *The Two Kingdoms* (2005)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내가 깨닫고 알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세 번째 쓴 책, *Man of Faith* (2010)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여러 나라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 책들을 읽고 보내준 뜨거운 반응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책들을 좀 더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갖게 해주고 있다.

네 번째 쓴 이 책 「*정말로 강한 사람*」은 1994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7주 동안 설교한 내용[1]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설교를 할 때 뿐 아니라 내가 쓴 모든 책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래서 찬찬히 책을 잘 읽어내려 가는 독자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도출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권의 책은 내가 30년 이상 섬겨온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눈 교제와 사역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설교를 녹음해서 다시 글로 쓰고 편집해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참여와 수많은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국적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이 책들을 출판하고 배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형제들은 앞서 출간한 세 권의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했고 *Understanding Job*을 아카(Akha)어로 번역했다. 그 형제들의 기여를 나는 개 교회(local church)와 우주적 교회(universal church)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교제를 보여주는 뜻 깊은 한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전에 나온 세 권의 책처럼 이 책 역시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내가 쓴 책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경의 유익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한 부분이다. 이 네 번째 책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많은 글들과 함께 500여 편의 녹음된 설교들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 www.godandtruth.com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 개제된 내용들은 무료로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도 무방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도록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림 까우 (Lim Kou)

[1] *Appearance and Reality* 라는 제목으로 전한 설교 시리즈 중에 포함된 설교 AR140-146

서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상 무력한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제로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강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정말로 강하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약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그 십자가는 힘과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곧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바탕으로 성경에 근거한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장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집단들과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권력과 권력 투쟁,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들과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군대의 사령관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이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간교하고 약삭빠르고 파렴치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들은 눈도 깜박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스스럼없이 행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들에게 희생을 당해왔다.

신자들 중에는 성공이라는 말이나 야망이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북해하는 편이다.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공, 야망, 권력 등의 개념에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바라볼 때 정말로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경은 우리가 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라고 권면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20)고 말했다.

힘과 능력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한 요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힘과 능력을 갖춘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먼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폭풍우를 가라앉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셨다. 또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으며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2절은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광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셨다
예수님에게는 분명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으셨다. 사실상 약해 보이셨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약한 것처럼 보였다.

십자가 사건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다. 힘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을 바로 그 때에 예수님은 약해 보이셨고 자신을 방어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에는 마치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해보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가복음 14:55절에 따르면 산헤드린이라 불리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리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쳤다(막 14:65).

그 후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헤롯의 관할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다.

누가복음 23:8-11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은 또 다시 모욕을 당하셨다.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 때는 유월절이었고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죄수들 중 한 사람을 사면해 풀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유월절 절기에는 통상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며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하게 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마가복음 15:8-15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그러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넘겨받아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시늉하며 조롱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갔다.

마가복음 15:16-20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은 계속되었다.

마가복음 15:24-32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까지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결의와 군중들의 요구와 로마 당국의 결정대로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약하고 한없이 무력한 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 세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수난을 당하게 될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괴롭힘을 당하고 짓눌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을 예언했다.

이런 모습은 힘과 권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과는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오히려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자세와 방식을 본받으라고 말한다(베드로전서 2:21-25)

우리가 이런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게 되면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당한 대우에 맞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처사에 우리는 분개한다. 중국 삼국지의 배경이 된 "삼국시대(Three Kingdoms)"당시 무사로 이름을 떨쳤던 조조는 "나는 세상을 저버릴 수 있지만 세상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그것을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만하고 자만에 차 있고 공격적인 특성들이 현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약하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과는 매우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온유와 겸손이라는 진정한 힘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종 연약함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겸손과 온유이다.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에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태복음 5:5절에서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온순하신 분이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배양해야 하는 자질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힘은 성품이나 자질 뿐 아니라 신념이나 확신과도 관계가 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기로 한 결정에 흔들림 없이 헌신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고수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말로 강한 사람은 옳은 길을 쉽게 단념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과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진정한 힘을 드러내셨던 강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보였던 모든 상황에서, 특히 십자가를 지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힘을 드러내 보이셨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행하도록 예수님이 언제나 허락하셨던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 4:20-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성에서 쫓아내고자 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던지려고 했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퍼붓는 조롱과 모욕을 참아내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극한 고통과 고뇌를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내내 이 자세를 유지하셨다.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디셨다.

예수님은 수난을 당하며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또 고난을 쉽게 여기지도 않으셨다. 사실상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극히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었다. 마태복음 26:36-39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고뇌하고 슬퍼하셨는지를 어렴풋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26:36-39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번민하며 고민하셨고 심히 괴로워하셨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상황을 맞이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크고 극심할지 잘 알고 계셨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비통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외침이 그 증거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심히 괴롭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극한 고뇌 속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결속과 하나 됨이 깨지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었다.[2]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이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고난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다. 어둠의 세력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길과 인류 구원의 길을 제공했고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와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힘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연약한 상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1.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충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약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요할 필요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2.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록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 고난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커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벧전 3:4)과 같은 소중하고 순수한 자질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2-4 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될 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야고보서 1:2-4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십자가와 예수님이 겪으신 고뇌와 고초가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웹페이지 www.godandtruth.com에 올려놓은 설교 AR173-175를 참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든 상황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3.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게 된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참 증거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인가?

정말로 강하면서 또 온유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뜻을 굳게 해야 한다.

강함과 약함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에 동조하는 대신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끈기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만큼 강한가?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만큼 강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적절한 일이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고통과 수치가 따를 수도 있다.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고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무자비하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볼 때 이런 반응은 정말로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아주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볼 수 있다.

여호수아 1:6-9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분수령이 될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6-7절, 9절). 그리고 7절을 보면 형통함이 강하고 담대함과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죄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성공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시와 방식을 따라야 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데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힘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기 위해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하게 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강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정말로 강해질 수 있다.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라는 권고의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로마서 7:14-19절을 읽어 보라.

로마서 7:14-19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무력함과 그가 느끼는 자괴감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실패한 듯한 느낌과 패배감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로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한다. 역대상 16:11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시 118:14)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주제가 시편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시 28:7);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시 31:4);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시 46:1)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5-6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예레미야 17:5-6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 경고하셨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난 덤불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체력과 능력과 세속적인 방식을 의지하려 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방식에 영향을 받고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레미야 17:7-8절에서는 5-6 절과는 매우 상반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레미야 17:7-8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 난 덤불과는 달리 푸른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을 가질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힘과 진정한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31-32 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은 8:31-32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요한복음 8: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속박에 묶여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이다. 그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게 된다.

요한복음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따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로마서 7:14-19절에서 보았던 그런 자괴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로마서 7: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25절)였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능력을 부여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롬 8장). 그 자유는 매우 값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정말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강해져야 한다.

내가 약할 때 그 때가 바로 강한 때이다
그런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2:9-10절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농락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가 묘사한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해 언급했다. 그 가시가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그 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12:9-10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에 기꺼이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무력함을 깨달았다. 특히 곤경에 처했을 때 더욱 더 그랬다.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해졌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 구절은 육체적인 힘과 자신감을 발휘하며 그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방식이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기에 적절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강해질 것이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해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정말로 강하지 않다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드러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에는 온유와 겸손이 수반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강하다. 그는 언제 어떻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그 신념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가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며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도 강해지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예수님이 약해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강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그 예를 들어보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정말로 강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

3.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가?

4.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2장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

1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손에 넣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가 권력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 이유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잘 살아가는데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정말로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볼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강했던 사람들과 정말로 약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정말로 강한 사람 -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 사람

정말로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해져야 한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 **골로새서 1:9-11**
>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성도들을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모든" 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다시 말해서 그저 약간의 힘을 맛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 힘을 가져야 하는?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1절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게 된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의 본보기
정말로 강하다는 것과 정말로 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그 두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단 3:1-30)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은 그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지시했다(1-6절).

그 당시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다.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가해졌다. 느부갓네살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 있었고 백성들은 그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몇 명의 유대인이 금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니엘 3:12-15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화를 내며 풀무 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19절). 그런 다음 그의 병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 활활 타오르는 풀무 불 속으로 집어던지라고 명령했다(20절). 그리고 병사들은 그 명을 집행했다.

다니엘 3:21-23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들 중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분명해 보인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다. 포악한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다. 그들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 있었다. 왕은 그들에게 사형을 명할 수 있었고 그 세 사람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였다.

우리도 이 세 친구처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매우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각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극도로 화를 내고 있는 그 대 제국의 포악한 통치자인가?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 사람인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취했던 매우 담대한 대처에 주목해보라.

다니엘 3:16-18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풀무 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거라고 장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 불 속에서 타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 신상에게 절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약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고 강한 사람은 세 친구였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제력이 없었고 감정에 치우쳤으며 그의 포악한 행동은 분명히 진리에서 벗어난 처신이었다. 반면에 세 친구의 대응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이제 그 세 친구가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 불 속에 집어던져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니엘 3:24-27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셨다. 불타오르는 풀무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다. 필시 말씀(Logos), 곧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님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 세 친구를 구해내시며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출 그 자체가 영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지니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가지는 힘의 구체적인 양상은 그 세 친구의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셨다. 그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 미친 영향을 보라. 26절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세 친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 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상황을 볼 수 있다.

다니엘 3: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28절에서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빈정대면서 그가 물었던 15절을 대조해보라. 이제 그는 세 친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는 몹시 화를 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들을 달리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그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참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절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세 친구가 취했던 입장을 이해하게 된 왕은 그들을 칭찬했고 더 나아가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서를 내리기까지 했다.

다니엘 3: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 제국의 전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무한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무한한 힘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람, 물체, 어둠의 세력, 환경 등 만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마 10:29).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서 8:28절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결국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하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요 18:28-19:16)

요한복음 18:21-19:16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소환해 심문했고(18:33) 이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다(19:1).

얼마 후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복음 19: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다.

언 듯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세와 권한을 휘둘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좀 달랐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대답을 보라.

요한복음 19: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한에 대해 위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다. "위에서"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권세도 부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도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을 할 수 있었다. 빌라도가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그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잘 살펴보면 사실상 심판대에 선 사람은 빌라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그가 행한 심판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참 심판자는 그 때 빌라도를 심판하셨고 마지막 심판 날에 다시 심판하시게 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1. 빌라도의 나약함

빌라도가 예수님을 상대로 강한 힘과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약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7:22-26절은 빌라도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

마태복음 27:22-26

22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빌라도는 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물을 떠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고(요 18:38)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온 것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마 27:18).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판단과 달리 무리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주었다.

로마제국은 법과 질서와 공정한 법 집행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법을 지키고 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엄격한 사명이 주어져 있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 해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결코 무죄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아주 나약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에게는 공명정대함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힘이 없었다. 대신 군중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잘못을 범했다. 즉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그 상황에서 빌라도는 강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그는 나약했고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했다.

2. 예수님의 힘

이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만유의 창조주셨다. 그러나 침 뱉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 끔찍한 대우와 극심한 고뇌를 감수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평정과 존엄과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셨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2:1-4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면서 경주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달려 나가야할 각자의 경주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인내하며 경주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보기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힘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는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놀랍도록 잘 보여준다. 우리가 정말로 강하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따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을 지키며 잘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해 보이지만 쉽게 흔들리는 사람

강하고 힘이 있고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흔들리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만하고 포악했고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같은 사람마저도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권력을 휘두를 때 그는 자신 만만하고 대담해보였다. 그러나 한갓 꿈 때문에 놀라고 불안해했다. 꿈을 꾸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의 말을 들어 보라.

다니엘 4:1, 4-5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 당시 느부갓네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 다니엘 2:1 절은 느부갓네살이 그가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두려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예를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된 벨사살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니엘 5:1-4절은 그가 천명의 귀족을 위해 베푼 큰 잔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잔치를 벌인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했다.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그와 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5절과 6절은 그들이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다니엘 5:5-6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벽에 글자를 쓰고 있는 손 등을 보게 된 왕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다. 6절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마법사들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단 5:9)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강하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시 62:11).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들이 강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제한적인 인간의 힘일 뿐이다.

세상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힘은 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자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안전과 지위와 부와 명예는 사실 허망한 것이 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극히 헛된 것이다. 신기루처럼 실망을 주고 잠시 보였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허무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영속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진정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영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다.

히브리서 12:27-28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정말로 강한 사람은 기초가 단단한 건물과 같다. 그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매력을 느끼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위세에 압도당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강하다

시편 112편을 읽어 보자.

시편 112:1-2, 6-7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구절에서 "흉한 소문"으로 번역된 단어를 부도덕한 일과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 단어에는 재해, 참사,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일" 또는 "좋지 않은 소식" 등으로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이런 흉한 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7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1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른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견고함과 신실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절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어두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신다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 안 그런가?

진정한 힘 -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 **빌립보서 4:13**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는 힘이 있다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에는 "힘이 있다, 유능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있다.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들은 단순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구절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결코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미 있는 고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면 된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힘

진정한 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강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히브리서 11:32-34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했다 이 모든 일들은 진정한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진정한 힘이 있음을 누구라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35-38절과 대조해보라. 이 구절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언급하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강한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35-38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여자들과 남자들은 약해 보인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으며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잘리기도 했고 궁핍했고 학대를 받았고 광야를 유리하며 살기도 했다.

불쌍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이 모든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그들이 겪은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진정한 힘은 살아가는 동안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을 피해 잠시 도피하는 동안 다윗은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강했다. 그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 때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안에서 강했다.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 충실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강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여러 왕을 섬기며 고위직에 머물러 있었다. 다리오 왕 당시 다니엘은 모함을 받았고 그 결과 사자 굴에 던져졌다. 다니엘은 그가 고관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나 사자 굴속에 던져졌을 때나 하나님 안에서 강했다.

외적인 상황은 다양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다양한 상황을 감당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내적 실체이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가? 하나님에게 충실한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정말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돌본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은 정말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로마서 15:1**
>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 것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사랑이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로마서 15:2 절에서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선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게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다음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것이다.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다음 두 사건 속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a)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단 3:1-30)
(b)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요 18:28-19:16)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2.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내게 능력주시는 자(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선언한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 고백을 입증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의미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

4. 진정한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각기 다른 방식들을 이야기해보라. 히브리서 11장과 그 밖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보기들을 생각해보라.

3장

정말로 강해지려면

지금까지는 정말로 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강해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강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는 말의 두 가지 측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는 말에 함축된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 하나님 안에서 강한 모습이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
- 하나님 안에서 늘 강한 경우

하나님 안에서 강한 모습이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
평소에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경우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급박하거나 비상사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다. 또 평소에도 강하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부딪혀 더 큰 힘을 내야 할 때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큰 힘을 발휘했던 한 사례를 사무엘상 30장에서 볼 수 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게 될 때까지 울었다.

> 사무엘상 30:6
>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실제로 아주 괴롭고 참혹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절망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야말로 강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때이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특별히 더 힘을 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강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늘 강한 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늘 강한 힘은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자질이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견실한 힘이다. 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힘을 발휘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늘 힘이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늘 강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큰 힘을 발휘하기가 훨씬 더 쉽다. 반대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늘 강해지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의 특성

정말로 강한 사람의 특성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면으로 좋은 진전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견실한 힘을 보이는 일반적으로 늘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도덕적, 영적 수준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영적 수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 참 지식과 지혜
- 믿음
- 기쁨
- 기도 생활
- 내적 성품과 자질
- 성령의 열매
- 소망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이 요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는데 이 요소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1. 참 지식과 지혜

잠언 24: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정말로 강한 사람은 실제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잠언 24:5절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라고 말한다. 그 말은 지혜가 강한 사람의 중요한 한 특징이며 강한 사람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참 지식이란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정말로 강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록 그 지식이 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아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과 지혜는 속임수가 주된 공격 형태로 사용되는 영적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쉽게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악한 자의 계략과 책략을 파악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알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참 지식과 지혜의 한 면모이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 지식과 지혜에는 긍정적인 도덕적, 영적 차원이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내신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서 12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했는데 이 권면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묘사한(1절)후에 이어서 한 권면이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지 지적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이해와 도덕적 반응이 포함된다.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사고방식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 더 새로워지고 더욱 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진리를 더 잘 알게 되고 생활 속에서 더 지혜롭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만다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그 문제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되길 바라신다.

2. 믿음

> 이사야 30:15
>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우리가 강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라고 한 말이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고 한 말 앞에 나오는 것에 주목하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구사해보려 노력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예를 들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런 태도들을 바로 잡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믿음이 지혜와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된다. 지식이 바탕이 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구사할 때 그 믿음은 강한 힘을 발휘한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믿음은 설사 그 믿음을 발휘한다 해도 효과가 없다. 또 진리를 알면서도 믿음을 구사하지 않는 것 역시 별 효과가 없다.

진리를 근거로 한 믿음만이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하려면 그 상황에 맞는 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는 온당한 방법과 채택해야 할 바른 자세를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게 보이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는 믿음을 구사해야 한다.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는데 종종 실패하곤 한다.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심란해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잘 믿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비틀거리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경우도 많지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참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면 그런 상황을 좀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사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을 배운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를 언제나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삶이 별 볼일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좋은 자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성취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특별하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구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늘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진리들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바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며 회개하는 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3. 기쁨

느헤미야 8:10
...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게 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울며 슬퍼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4)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런 슬픔이 낙심으로 이어져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힘들고 참혹한 상황에 부딪힐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대신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다.

빌립보서 4:4 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다. 이 말은 명령이며 또한 권고이다. 이 말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일하실 수 있다. 또 우리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낙심하고 풀이 죽게 되면 잘 생각할 수 없거나 우리 마음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 우리 영혼이 짓눌리게 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환경을 조성한다.

4. 기도 생활

정말로 강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질적으로 잘 영위한다. 질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역시 기도 생활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34절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이어 36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힘을 갖게 된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질 힘겨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심각한 영적 중압감을 언급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련과 고난과 곤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기도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거듭 넘어지고 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다.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육신은 언제나 약하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마태복음 26:41절에 기록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측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권고하신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측면이다. 기도의 이 두 번째 측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향상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약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점점 강해지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특히 극심한 영적 방해와 모진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마태복음 26:41절에도 암시되어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해질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냈던 사실에 주목했다(삼상 30:6).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구사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서 힘을 발휘했다.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각자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는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다.

에베소서 3:14-16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5. 내적 성품과 자질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의 자질과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우리 성품의 성숙도가 달라진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성품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어떤 요소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품을 얼마나 잘 개발하는지는 하나님과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우리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에베소서 3:16절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런 강하게 하심은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힘은 우리의 육체적 근육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성숙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가 있다. 정말로 강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련과 곤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끈기가 있다.

바울의 기도는 17-19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에베소서 3:17-19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16절)믿음과 성품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사랑은 좋은 성품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의 성품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 성품이 잘 개발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쌍방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 다시 말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삶과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바울은 연이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으로 영적, 도덕적 수준의 목표이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6. 성령의 열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갈라디아서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강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이 자질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성령의 열매 중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한 자질은 바로 절제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지표이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몸과 마음으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7. 소망

시편 31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편 31:23-24

23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로 강하고 싶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둔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시련과 영적 압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한 요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에베소서 3:18-19상반절을 다시 읽어 보라.

에베소서 3:18-19상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엡 3:16) 관련된 진리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 측면은 알고 깨닫고 터득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바울은 신자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17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래서 19절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해석이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대신 바울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와 이 19절 상반절을 연결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해석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이다. 이 주제가 사역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이 구절 이전의 구절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에베소서 3:8-11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에는(9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8절)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10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11절) 그 중심에 놓여 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따라서 19절의 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와 관련된 이슈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그 방법이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하나의 연결 고리이다(17-18절). 그리고 그 진리들과 사실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깊고 풍요로운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19절). 하나님의 부르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깊은 확신과 강한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전반적인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의 전 계획을, 특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알고 통찰력을 가질 때에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잘 이해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진리 안에서 안정되고 탄력적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믿음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신자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한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11절부터 16절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잘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바람직한 결과를 13절과 14에서 볼 수 있다.

에베소서 4:13-14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이리 저리 떠밀리고 거짓된 교리 때문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한다. 사람들을 이리 저리 떠밀리게 만드는 것은 단지 잘못된 교리뿐 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 뒤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간사한 유혹" 뒤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자의 세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를 창세기 3:1절에서는 간교한 자로, 요한계시록 12:9절에서는 꾀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거짓된 교리와 다른 많은

수단들을 동원해 우리를 속이려하는 숙련된 사기꾼이다.

바울은 진리를 잘 알고 전반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따라 이리 저리 밀려다니는 어린 아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흔들리거나 속아 넘어가는 약한 사람도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지식과 지혜는 악한 자와 사람들의 간교함을 포함한 그 어떤 속임수에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란다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11-12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13절) 이르도록 성숙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성숙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정말로 강해지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또 그 지식과 관계는 우리가 이리 저리 흔들리고 쉽게 떠밀려 다니는 것을 막아주고 변함없이 진리를 따르게 해줄 수 있다.

에베소서 4:15절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런 관계와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 16절은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자라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에베소서 4:15-16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있다.

골로새서 1:9-11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구절 역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과 연결되어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거나 사람들이나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로 강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덧입어야 한다.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됨으로 모든 면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지식과 지혜와 영적 자세와 영적 성숙과 주 안에서 강한 것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관계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것 등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들 이슈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연합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결론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역량과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마땅히 그들의 동기와는 달라야 한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게 신실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는 정말로 강하다는 말의 의미이며 타락한 세상의 관점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정말로 강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하고 굳건한 정신과 새롭게 된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하고 굳건한 정신과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보다 진리를 먼저 따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진리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권력은 타락한다. 그리고 전적인 권력은 전적으로 타락한다.” 라는 말이 잘 알려져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타락하지 않는 것이며 또 타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자기 잇속만 차리지 않기 때문이다. 순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 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되는 헌신

정말로 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고 그 헌신은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참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기쁨과 기도의 능력과 속사람의 강건함과 영적 성숙 등과 같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또 그렇게 할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늘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주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약 1:2-4)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적인 힘과 끈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지식에 뿌리가 박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하게 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고 성품을 개발하는데 무심하지는 않았는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왔는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잘 따르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이 장에서 논의한 주 안에서 강하다는 것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해하게 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 이 두 측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다음 요소들이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참 지식과 지혜
   - 믿음
   - 기쁨
   - 기도 생활
   - 내적 성품과 자질
   - 성령의 열매
   - 소망
   -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순응
   - 헌신

4장

정복하는 사람들 :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

이 장에서는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깊이 다루어 보고 싶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 개인적인 영역
- 공동체적인 영역: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주제와 관계가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 각기 다른 정도의 힘
- 힘이 빠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

각기 다른 정도의 힘

우리는 각기 다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고 성장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적 능력의 수준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무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강하지 않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적 중압감이나 반대 세력에 별로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도움 등과 같은 중요한 영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커지고 영적 중압감이 더해지게 되면 기가 꺾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 이 점이 바로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쉽건 어렵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잘 담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잠언 24: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잠언 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들 중에는 비교적 힘들지 않은 상황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곤경들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예레미야 12: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평탄한 때에 넘어진다면 요단 강 물이 범람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평안한 땅"은 비교적 쉬운 상황이라면 "강물이 넘칠 때"는 좀 더 힘든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뛰면서 피곤해한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이 더해질 때, 더 큰 도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영적 중압감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극한 영적 전투와 영적 중압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비교적 쉬운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개발해야 할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에 탄식해야 할 뿐 아니라 잘 성장함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서로 도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나가도록 하자.

시편 84:5, 7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은 우리의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자. 7절은 우리의 힘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만에 빠지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자.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기 때문이다.

힘이 빠지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라고 의아해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 요인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정말로 강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들과 상반되는 것들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성숙과 믿음과 기쁨과 지식과 지혜의 너비와 깊이와 자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죄와 의심과 두려움과 조바심과 낙심과 세상 근심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부정적인 품성들이 우리 힘을 약화시키고 악한 자, 곧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약해지게 만든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죄는 우리 힘을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는 도덕적인 성품과 속사람을 긍정적으로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거침이 된다.

시편 31:10
...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기자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탄식했다. 죄는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든다. 따라서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점점 약하게 된다.
다른 시편을 하나 더 살펴보자.

시편 32:3-4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이 두 구절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죄를 숨기려 할 때, 죄를 직시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이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
"종일 신음하므로"라고 한 고백은 신음하게 만드는 외적인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내적으로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한 이 말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됨을 말해준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진액"은 우리 몸이 잘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진액"을 "활력"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 우리 죄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몸의 진액이 빠지면서 점점 쇠하게 된다.
우리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거나 숨긴다거나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건강한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제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과 힘이 우리 안으로 자유롭게 흘러드는 것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의 진액이 빠져나갔다고 말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 사함을 얻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던 시편 기자를 통해 배우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

2. 의심, 두려움, 염려
우리의 영적 힘을 앗아가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이다. 이 요인들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면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공격 앞에서 우리를 약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사탄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부추기는 사탄의 조장을 물리치고 그의 화살과 공격 미사일을 막아내는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3. 낙심과 세상 근심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면 풀이 죽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된다. 그래서 슬픔에 잠기게 되면 빈사상태에 이르게 된다(고후 7:10).

앞 장에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고 한 느헤미야의 격려를 살펴보았다. 낙심과 세상 근심은 우리로 사경을 헤매게 한다. 기쁨과 상반되며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다.

낙심과 세상 근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낙심과 세상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

4. 무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약해지고 무너지기 쉽다. 참 지식과 성경에 드러난 진리는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다.

5. 어리석음, 자기만족, 부주의
어리석음과 자기만족과 부주의는 지혜와 부지런함과 조심과 반대되는 개념들이다. 후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고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반면에 전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쉽게 무너지게 만든다.

6. 부정적인 품성
조급함, 원망, 교만, 탐심, 몰인정 등과 같은 부정적인 품성들은 성령님을 몹시 슬프게 한다. 악한 자는 우리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품성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이런 품성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악한 자의 획책에 쉽게 넘어가는 먹잇감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은 악한 자의 간계에 무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 힘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단호함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 반면 교만처럼 뿌리가 깊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요인들도 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싶다면 이 모든 요인들을 해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 주제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영적 전투
우리가 의식하건 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극심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한 가운데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려 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적 전투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는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 것
에베소서 4장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영적 전투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7절을 읽어 보자.

에베소서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나 자리를 만들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조정해야 한다.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안일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악한 자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약점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고 부지런하고 깨어있을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다. 진리를 따르는데 부지런하고 원수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정말로 강한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특징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다.

요한일서 2:14
...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라고 한 말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한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라고 한 말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2:11절이 서술하고 있는 극적인 전투에서 최고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전투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강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2: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토대로 또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그들의 진심어린 헌신을,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토대로 악한 자를 정복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헌신하며 그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하는 악한 자를 끊임없이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정적인 날을 위해 개인적으로 성숙해나가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면 할수록 영적 전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악한 자의 공격을 더 잘 물리치게 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생활처럼 좀 더 넓은 영역에서도 악한 자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교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추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그런 추세들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토대를 마련해준다.

잘못된 교리와 부정적인 태도와 세속적인 가치관과 방식들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문제들을 확대시키고 배가시키며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자의 공격은 신자들의 반응에 따라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정말로 강한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그 공격과 교회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영위하는 지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이나 추세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둠 속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고 미신이나 우상 숭배나 세속적인 철학이나 물질주의나 쾌락 등에 사로잡혀 있다.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와 속박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다면 그들의 증거와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와 장벽을 제거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각도에서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한 요소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이 바로 그 요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전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0:3-4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한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한 말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이 세상에 속한 자원들을 사용해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개발하고 키워야 한다.

영적 전투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의 성취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과 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 그는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또 세상 방식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믿음을 통해 어떻게 구원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는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드러내주신 비밀과 이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드러내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지혜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대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수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일과 교회 생활을 통해 잘 성숙하는 일과 우리의 이런 연합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6절은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각 지체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7절부터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대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다(22-24절).

이런 문맥에서 그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27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29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30절)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고(2절) 모든 더러운 것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야비한 말을 하지 말라(3-4절)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노력하고(10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면서 세월을 아끼라(15-16)고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17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18절)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은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의 진정한 관계와 주인과 종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10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했다.

이 10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구절들이 에베소서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이다.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진리를 깨닫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리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로 강한 사람의 중요한 한 특징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말이다.

에베소서 6:10-17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강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에베소서 6:10-17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언급한 다음 곧 이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굳건히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또는 영적인 압박이 없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영적 전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힘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우리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이다(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한 이 말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다거나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 그 너머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적인 영역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안에서 강해야 한다.

2.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은 언제나 어둠의 나라를 위협한다. 따라서 영적인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나아갈 때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리한 존재들이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울은 사탄의 계책과 계략에(고후 2:11)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영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영역에 가해지는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먼저 공격할 것이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사탄은 비신자들뿐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그 속박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에 저항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려는 사탄의 영향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어둠의 나라는 움츠러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하게 된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섬기도록 보내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

사도행전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세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어둠과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골 1:13)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씨름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과 활력만으로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육체적인 힘과 활력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저 무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 도덕적, 영적 자질들의 중요성
에베소서 6:13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덕적, 영적 자질들과 대부분 관계가 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14절상). 이 말은 건전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14절하).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의 긍정적인 도덕적 특성들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말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15절). 이 말은 우리의 준비된 영적 태세를 나타낸다. "준비"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채비"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복음 전파에는 영적 전투가 따른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라는 견고한 토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능한 대사가 되고 영적 전투에 맞설 태세를 갖추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믿음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한 요소이다. "믿음의 방패"(16절)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긍정적인 도덕적, 영적 차원이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내주신 진리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투구"(17절상)는 결정적인 무기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구원은 회심 그 이상이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포함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17절하)은 사탄을 물리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의"가

“호심경”이고 “믿음”이 “방패”이고 “구원”이 “투구”인 것처럼 “성령”이 바로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 영적 전투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지혜와 지식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힘과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믿음을 구사하도록 가르치시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신자의 도덕적, 영적 자질들은 영적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믿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진리를 토대로 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생활이 영적 전투를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함께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강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들이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가 된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에 속한 군사들은 혼자 싸우지 않는다.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다.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된 그림을 생각해보라. 그 그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각자 무장한 주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을 배우는 신자들의 군대를 보여준다. 각 신자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대로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잘 싸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개념은 실제 군대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적절한 역할 수행

군대에는 군사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이 있다. 정찰병이나 특공대나 보병대처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술자나 요리사나 그 밖의 지원군처럼 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유능한 군대에서는 전방에서 싸우거나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모든 병사가 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군대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또 기술자들이 적절한 다리를 건설하지 않거나 제 때에 건설하지 못한다거나 요리사가 음식 준비를 위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병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유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속한 각 병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한다. 병사들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 있다 해도 별 소용이 없게 된다. 훌륭한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유능한 병사들과 지원 병사들이 있어야 한다.

또 교회는 인간의 몸에 비유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다. 인체에서 각 지체는 모두 다 중요하다. 눈과 코를 생각해 보라. 눈과 코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몸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눈과 코가 각각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다 중요하다. 각 구성원에게는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각각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효과적인 교회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이 비록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4:11-16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영적 전투에 관한 구절 이전에 서술되었고 또 그 구절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혼자 잘 성장한 신자들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신자는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 잘 싸우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함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각 개인이 적절히 잘 수행한 역할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엡 4:16).

역대상 12장 - 하나님의 유능한 군대로 비유할 수 있는 정복자를 보여주는 그림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과 탁월했던 그의 용사들의 자질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용사들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 영적전투에 임하는 건강한 교회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상 12: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당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사울을 대신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1절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은 여전히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사울이 여전히 왕권을 쥐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자비하게 쫓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휘둘렀다.

사탄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 맞서고 있다.

그러나 1절은 또 다윗을 찾아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교인들 중 정말로 강한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

역대상 12:2, 8

2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8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윗의 용사들은 잘 무장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를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쓸 줄 알았고 물매를 던지고 화살을 쏘는데 왼 손과 오른 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전투태세를 잘 갖춘 용사들이었다. 두려움이 없었고 빠르고 잘 준비된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유능한 병사가 되려면 신자들이 용감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하고 영적 전투에서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상 12:14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는지 볼 수 있다. 그들은 백 명의 병사들을 혹은 천명의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다.

역대상 12:22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구절은 흥미롭게도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큰 군대를 이루고자 하신다. 다윗을 돕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역대상 12:23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었다. 체계적이었고 분립화가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도 잘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갇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되고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조하는 잘 준비된 군대가 될 것이다.

역대상 12:32-33
32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33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다윗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에 합치하는 목적의식과 사명 의식을 굳건히

가진 사람들인가?

성경은 전쟁터로 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던 다윗의 용사들을 몇 차례 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33, 35, 36, 38절) 그것은 잘 조직된 군대를 이루어 싸우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싸우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잘 조직화된 군대를 형성하고 함께 싸웠다.

우리도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된 잘 조직화된 군대를 이루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워야 한다.

33절은 또 그들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전투에서 각자 감당해야 할 각기 다른 역할이 있고 싸움에 필요한 각기 다른 무기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각자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

역대상 12:38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헌신한다. 다시 말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에 순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우리는 전심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강하고 건강한 신자들이 필요하다. 신자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3:8-10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신자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 영적 영역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11절).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될 때 가능해진다(엡 3:16).

결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강한 신자들을 세우고자 하실 뿐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기여하면서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신다. 억눌린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모든 신자들이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진리를 토대로 굳게 설 수 있을 때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생활 속에 잘 융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전투를 위해 잘 준비되고 그 전투를 제대로 싸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계속 배우고 또 점점 강해지게 된다.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영적인 힘의 각기 다른 정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죄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세상 근심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부정적인 성품들이 어떻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강한 것과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역대상 1장 12절에 기록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5장

힘과 능력: 개념, 문제점, 위험

이 장에서는 힘과 능력에 대한 각기 다른 종류와 개념들에 대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과 위험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힘과 능력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람들은 종종 힘과 능력을 부와 지위와 권세와 역량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세속적인 힘과 능력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니다. 힘과 능력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험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추구하다 타락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반면에 또 이런 세속적인 힘과 능력은 추구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영적인 능력은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은 칭찬할만한 것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다. 주님을 섬기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힘이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능력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잘못 이끌린다거나 잘못된 영적 경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와 관련된 문제들과 위험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탄의 영적 능력일 수도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는 있다. 그러나 드러난 모든 영적 능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닐 수 있다.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역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 중에는 사탄의 능력에 속한 것들도 있다.

성경은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두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바로의 요술사들

출애굽기 7:8-12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8절에서 10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 드러난 사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12절은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16-19절을 보면 그 요술사들의 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출애굽기 8:16-19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어 애굽 땅을 뒤덮게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마술사 시몬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또 한 사례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술사 시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 8:9-11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어둠의 세력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 왔다. 그는 자칭 자신을 큰 자라 불렀고 사람들도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는 사탄이 그를 통해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마술에 속아 그것을 긍정적이고 경탄할만한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못 생각한 그들은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인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드러내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거나 경배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영적인 힘과 영적 경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적 경험을 통해 현혹하는 속임수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이 드러내는 영적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기이한 영적인 경험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아닌 영적 능력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11:14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기분 좋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될 때, 특히 평안과 기쁨 같은 감정이 동반될 때 신자들은 종종 그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리곤 한다. 그렇게 쉽게 내린 결론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경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 속임수를 환영한다면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는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속임수가 점점 더 그 도를 더하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우리를 깊은 영적 속박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요일 4:1). 바울도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말세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딤전 4:1).

힘과 능력을 갖고 싶은 욕구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위험과 문제점들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능력을 구해야 한다.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사도행전 8:12-13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의 설교를 듣고 시몬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이나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을 보고 놀랐으며 그런 일에 그의 마음이 끌렸다.

그 얼마 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했고 두 사람은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일이 시몬을 더욱 더 놀라게 했다.

사도행전 8:18-23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들이 안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분명히 순수하지 못했고 그의 방식도 적절치 못했다. 그는 능력과 권세를 얻고 싶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봐 주기를 바랐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얻기 위해 사도들에게 실제로 돈을 주려고까지 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일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수 있고 정말로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바람을 가진 신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맞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안 그런가?

시몬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긴 했지만 순수하지 못한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말하며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23절)라고 진단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 시몬이 행해온 마술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그의 삶 속에서 활동해왔고 여전히 그를 볼모로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의 잘못된 욕망과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긴 했지만 어둠의 세력과 결탁했던 그의 과거와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의 순수하지 못한 욕망과 욕구 때문에 그는 여전히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덧입혀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영적 능력을 구하는 사람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주신다. 우리가 권력이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쭐해 하면서 방종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동반해야 한다.

3. 선한 성품과 태도를 개발하고자하는 열망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는 긍정적인 태도와 선한 성품을 키우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구하는 마음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까지도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선한 성품과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교만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온당치 못한 동기가 있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4.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깨달음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진리를 실천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깨달음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깨달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순한 욕구와 잘못된 동기로 얼룩지게 되면 진정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즉 사탄에게 쉽게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심한 억압에 사로잡히게 되고 곤경에 빠지게 된다. 특히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깨달음과 짝을 이루게 되면 더욱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점점 악화되는 다음 세 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나리오 #1 - 자신을 "비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려면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실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자신을 "비우려" 한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려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을 다스려주시기를 애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밖에 있던 영이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점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 이런 방식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 그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이 잘못된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와 우리 삶을 이런 방식으로 지배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시나리오 #2 -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격한 감정이나 억누를 수 없는 감정
격한 감정이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야단스러운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울 수도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을 영적인 열정이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과 연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강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감정이 따르긴 하지만 그런 영적 경험의 감정적인 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영적이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그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도록 격려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열망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생각을 흐리게 만들거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절제하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다(갈 5:22-23). 성령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어둠의 세력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기 바라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2:37). 바울은 로마서 12:1-2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 뿐 아니라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따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늘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제재해야 한다.

시나리오 #3 - 방언과 성령 충만의 관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방언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진 신자들은 방언을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어둠의 세력에게 가짜를 제시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가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꺼이 그 가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자들은 가짜를 제공한 사탄과 연루하게 되고 결국 그 영향과 속박 아래 사로잡히게 된다.

서로 돌보며 기꺼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관련된 영적 원리들을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는 위험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면 그리고 그 경험이 사실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영적 속박에 얽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될 때 더욱 그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할 때는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우리가 한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돌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심각한 영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

기적이나 치유나 귀신을 내쫓는 일 등과 같이 보다 명백하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드러날 때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마음을 끌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런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기적이나 치유 같은 일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시며 신약 시대 이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는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해줄만한 설득력 있는 성경적 지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입장은 영적 실체와 잘 맞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것을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정말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지 사탄에게 속한 능력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쪽으로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이 분야에서도 우리는 전체적이고 균형 잡히고 성경에 근거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 기적과 치유를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런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대로 나누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하거나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런 은사들이 순수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런 입장을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영적인 은사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생각해 보라. 영적 은사라는 면에서 볼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전 1:7)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린도전서 3:1-3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마실 수 있는 젖을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 나열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등의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방언을 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영적인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자 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정말로 강한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사역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신약 시대였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를 묘사하고 있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요한복음 10: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강한 사람을 통해 눈에 확 드러나는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몇 가지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옳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와 건전한 지식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가? 어느 쪽을 더 중시하고 있는가?
옳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때때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별한 경우에 덧입게 되는 능력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도 감당하기 벅차거나 매우 중요한 경우를 위해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사도행전 4:8절에 나타난 예를 보라.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의 사역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행 2, 3장). 그를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그의 복음 전파에는 힘이 있었다. 한번은 그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들의 평의회 앞에 서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4:7-8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진술을 볼 수 있다. 그는 그 상황을 대면하기 위해 새롭게 충만해졌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평의회 앞에서 담대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사도행전 4: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평의회 앞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있었다.

능력을 드러내고 섬기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산상 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22-2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22-23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나냈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리 분명치 않다.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아마도 그들은 한 때 참 신자였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영적 은사들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한 사역과 봉사를 인정해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까지도 거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이후에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냈던 영적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가짜인지는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없다.

- 그들은 자신들을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참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행했던 영적 은사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가짜였고 따라서 주님은 그들과 그들이 한 일을 거부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를 들어 설명하셨다(16-20절). 그런 다음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21절).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한 구절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22-23절은 참 신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보자.

1.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태복음 7:22절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한 일은 좋은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내적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 없었다.

2.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자신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섬긴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우리 삶을 조종하면서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옳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3. 우리의 삶과 성품이 우리 섬김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사역과 섬김의 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23절)고 말씀하실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성품과 내적실체이다.

결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삶은 내적 사람의 긍정적인 자질들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자들의 선한 성품과 긍정적인 자질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더불어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5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진수이다.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그리스도인이 영적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사탄의 능력이 영적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둠의 세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3. 어둠의 세력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14절, 디모데전서 4:1절, 요한일서 4:1절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 어떻게 하면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4. 영적 능력을 힘입고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합당한 긍정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5. 영적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을 통해 영적인 힘을 추구하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려 할 때 따르는 위험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6장

영적 경험과 영적 능력의 발휘

이 장에서는 영적 능력이 의미 있게 드러난 영적 사례들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음성 등을 포함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따를 수 있는 위험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적 속임수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영적 능력이 의미 있게 드러난 사례들

극적인 방식으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 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예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랐고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런 베드로의 입장이 된다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느끼며 우쭐해지기 쉽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각광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과 기적에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렸다.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게 증언했다.

사도행전 3:11-16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도행전 4: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행한 사역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한 모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한 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모세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 준비시키신 후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세는 나이 사십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무모하게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을 쳐야 했다. 그리고 그 후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다. 그 훈련 기간을 마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시기

하나님의 능력은 명백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명백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나 그 보다 더 중요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한 형태로 드러내시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생활하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시기를 들 수 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였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 다음 시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당시였다. 두 선지자 모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그 한 이유는 그 시기가 영적으로 어둡고 메말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추악한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에서 떠나길 바라셨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면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적을 행했다.

열왕기상 18:21-24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로다

23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36-40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가 또 다른 한 시기였다.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날로부터 초대 교회 시대까지를 말한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또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 능력을 부여해주셨다.

개인의 삶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는 건전한 자세

하나님의 능력이 눈부시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고자 열망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경험을 부정하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눈부신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자질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자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개발하고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선이라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

속임수라는 위험과 긍정적인 내적 자질들의 중요성

눈부신 영적 경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속임수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영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영적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언제 어떻게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집중되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영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능력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보다 더 눈부신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는 않는가? 눈부신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성숙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내적 자질들과 건전한 영성이다.

누가복음 10:17-20절을 읽어 보라.

누가복음 10:17-20
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도록 칠십 인을 내보내셨다. 17절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돌아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칠십 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경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에 그들이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 그 경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몰두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일이며 그 일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이슈이다. 그 일에는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제들과의 교제가 포함된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는 영적인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요점이고(마 25:14-30)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신다

기적과 방언과 치유와 귀신 축출을 통해서만 영적 능력이 명백하고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신다. 꿈이나 환상 같은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이 영역에 대해 이제부터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덜 극적이고 덜 분명한 방법을 통해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는 진술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 사도행전 10:2절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구제에 힘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당시 그는 성숙한 신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0:3-4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사도행전 10:5-6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 때 베드로 사도 역시 영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9-20절에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물체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큰 보자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다(19-20절).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와 영적인 방식으로 소통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바울의 경험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바울이 정오경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둘러 비췄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고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지시하셨다(6-10절).

17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또 한 번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때 주님이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18절). 그리고 바울이 주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주님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21절).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신 경우들도 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꿈이다.

요셉의 꿈
마태복음 1:18-21절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과 소통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마태복음 1:20-21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났다.

마태복음 2: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 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마 2:20)고 말했다. 이 모든 지시들은 꿈을 통해 명백하게 전달되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동방 박사들도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마 2:12).

이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의 꿈과 느부갓네살의 꿈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바로의 꿈

바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꿈을 꾸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바로는 꿈속에서 흉하고 파리한 소 일곱 마리가 아름답고 살진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고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두 번째 꿈에서는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통통하게 알이 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요셉 외에는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16절)라고 대답했다. 그는 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에게 분명히 알렸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었다. 그가 꾼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바로에게 설명했다. 칠년 간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칠년 간 큰 흉년이 따를 것이므로 애굽은 풍년이 이어지는 칠년 동안 그 후에 이어질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삼고 왕 다음의 최고위직에 임명했던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고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더 큰 목적을 보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남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창 45:5-7). 요셉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과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과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 때문에 심란해하는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다. 그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그의 꿈들을 해석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큰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셨고(19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주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그 꿈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 을 위한 것이었다.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이라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이었다.

꿈속에서 느부갓네살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커다란 신상을 보았다. 그리고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을 부서뜨렸다. 그 꿈은 나라들이 연이어 흥망을 거듭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로 끝이 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했다. 그리고 던진 사람 없이 날아와 그 신상을 쳐서 깨뜨린 돌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다니엘 2:44-45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 땅의 나라들은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의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꿈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날 침상에 누워 있던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았다. 환상 중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니엘 4:14-16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는 경고로 해석했다(20-23절).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힘이 있고 위대했다.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그 꿈의 의미와

하나님의 선고를 설명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한 좋은 조언까지 해주었다.

다니엘 4:25-27
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다니엘의 해석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다(28-37절).

오래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는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 경고하셨다(창 20장). 느부갓네살과 달리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으로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지시와 예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지시하시며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 에스겔서를 통해 그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다른 것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다(28절)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엎드렸고 엎드린 상태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지자에게 직접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다음 구절들을 들 수 있다.

에스겔 2:1, 3, 7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3: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아주 분명했다.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셨다.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징조를 보여주도록 지시하셨다. 에스겔은 그 지시대로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 넣고 그 토판을 에워쌌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그들이 죄를 범한 햇수에 해당하는 날 수대로 처음에는 왼편으로 그 다음에는 오른편으로 누워 감당하라고 지시하셨다.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지시는 에스겔서 5장과 6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에스겔서 6장의 첫 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스겔 6:1-3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에스겔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 생활에 관한 징조를 보여주도록 지시하셨다. 6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도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셨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 다양한 구절들을 예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말씀에 이어 긴 내용의 예언이 뒤 따른다. 그 예언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에스겔 13: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 13: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3:13, 18, 20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2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에스겔 14:4, 6

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명백하게 지시하신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짓는 일과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셨던 때를 들 수 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소통의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소통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 노련하게 사용하는 속임수이다. 바울은 특히 마지막 날에 신자들을 타락시키려는 속이는 영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딤전 4:1)

"음성을 들음" - 위험과 보호

"음성을 들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그에 따르는 위험과 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경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그 음성이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할 경우 더욱 그렇다. 만일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위험이 따르고 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 현혹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악한 영들은 매우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흉내 낼 수 있다. 고무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적 경험을 하면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색다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영적 존재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 또 밝은 빛을 보거나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이치에 맞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슈들에 주목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 자야 할 시간에 자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긴급하게 특정한 이슈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지시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잃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다.

그 후 점점 더 기괴한 지시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들을 계속 따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점점 더 현혹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이다. 현혹된 사람은 그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을 의지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속임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는 점점 더 심각한 속임수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어둠의 권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속박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이런 속임수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네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렇게 말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그 음성의 지시를 따르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시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지시가 성경을 읽으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등과 같은 건전한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쉽게 따르지 말아야 한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을 따르게 될 경우 실제로 그 음성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음성의 출처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영적 속박에 얽매이게 될 수 있다.

2. 무엇보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탄의 간계를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욕망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오점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과 상반되는 사탄의 활동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사탄의 간계와 일하는 방식을 안다면 쉽게 그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이는 영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셨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교활하고 흉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하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고 조심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4.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 지원이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격리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위험이 산재해 있을 때, 특히 속게 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드러나고 사탄의 계략이 폭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해야 한다.

결론

힘과 능력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을 분별해야 한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욕구가 우리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특히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결점과 부정적인 특성들이 있을 때 심각한 영적 속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의 수법을 잘 모른다면 그리고 그 속임수를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처럼 보다 극적이고 명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 앞에서 지나치게 감탄하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중요한 요점은 영적인 능력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영적 경험을 바라는 욕망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능력을 정말로 강한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 삶의 질적 수준을 개발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건전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 특히 영적인 경험을 갈망할 때 더욱 그렇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심각한 차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탄의 속임수와 영적 속박에서 아주 자유롭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극적이고 눈에 확 드러나는 영적 경험을 바라며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사탄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일에 마음을 쓰자.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라.

2. 영적 능력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또는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는 건전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3.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하나님이 한 사람과 직접 소통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4.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음성의 지시를 따를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장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과 일하는 방식: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방식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덜 극적이고 덜 분명한 방법을 통해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는 진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 – 이해와 참여의 중진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또는 저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과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정한 진리와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 그 진리와 교훈들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보다 분명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영역들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진리와 교훈을 바탕으로 좀 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야 할 관련된 원리들과 사안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충분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거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영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좀 더 확연해 보이는 인도하심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것이 더 나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며 교회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 등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러나 그런 진리와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장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식이 하나님이 오늘날, 특히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 선호하시는 방식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는 위험과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는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성대모사를 하는 사탄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탄은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부지중에 사탄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탄의 영적 속박에 놓이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유일무이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용과 교훈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려주실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무진장한 진리를 풍부하게 드러내주셨는데 그 진리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하나님의 방법
-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인간을 향한 목적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 영적 전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 인간의 도덕적, 영적 수준의 중요성
-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
- 교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교회 생활
- 하나님의 나라
-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는 도덕적, 영적 원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영적 이해와 풍부한 진리는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에 비추어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권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또 우리 자신이나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이유는 진리의 객관적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이나 감정에 현혹되어 속임을 당하는 일로부터 자신을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한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3. 덜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는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이해가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는 관심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을 쏟으신다.

덜 극적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은 좀 더 극적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에 비해 거짓에 현혹되거나 자기 주관에 빠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믿을만한 방식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문제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나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들과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거가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결정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또 성경을 읽는 동안 특정한 진리와 영적 원리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진리와 원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원리를 그 적용 방안과 함께 논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단적이 되거나 “바로 이거야”라고 장담하는 위험에 덜 빠지는 대신 개방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님이 절 아프리카로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요." 라거나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대담하게 장담하지만 그런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에 현혹된 것인지를 검토하기도 쉽지가 않다.

"하나님이 자매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는 형제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자매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주장 이외의 다른 정보 없이는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는 매우 힘들 수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형제의 구애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를 현혹하려는 속임수인지를 논의하기도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 형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그 질문을 통해 그 형제의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일방적인 바람이거나 아니면 속임수에 현혹된 것인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다. 특정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때는 급하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저 따라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진리를 전하시는 방법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은 실제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신 방법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과 훈계와 경고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언과 함께 경고하고 훈계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들은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말씀일 경우도 있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때 그 말씀은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선지자들조차도 때로는 자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 헤아리지 못하기도 했다.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세를 통한 지시

율법과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자세한 지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좋은 사례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백성들은 지시를 받은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다(출 39:42-43).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1:4-5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진술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자신은 어린 아이인지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자(렘 1:6)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예레미야 1:7, 9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아주 확실하게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2:1-2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 3: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1-4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8: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예레미야 8:4, 13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오바댜의 묵시
오바댜서 전체는 기본적으로 묵시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바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오바댜 1:1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묵시"라는 말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영적인 체험을 하던 오바댜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는 그 말씀을 묵시라고 묘사했다. 그 말씀은 오바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
말라기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말라기 1: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말라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섞인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신 정확한 내용으로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말라기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2:1-2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실 수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렇게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며 의사를 전달하신 방법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통해 진리와 교훈과 권고와 경고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신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처음에 소개하는 서두가 없다는 점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소개말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선택하신 의사소통 방식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고와 교훈은 편지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서한들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신 지시나 말씀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 해 전달하지 않았다.

그보다 서신서나 서한들은 사도들이 특정한 상황에 처한 그룹이나 특정 개인에게 쓴 것들이다. 사도들은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관련된 환경과 그 환경과 결부된 사안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들이 편지에 쓴 내용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쌓은 영적 지혜와 그들이 도달하게 된 영적 성숙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었다. 서신서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 나온 것들이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거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쓴 다른 서한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2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0-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0-13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 그는 당면한 상황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다.

고린도전서 3:1-2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패륜도 지적하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서 5:1, 3-5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6장에서는 형제를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서 6:1, 5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는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7:1-2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2: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의 견해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갈라디아서 1:1-2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4:1절에서는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갈라디아서 4: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징벌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3:1-3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책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망이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마암아"(갈 1:1)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서신서에 쓴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 서신서들은 사도가 편지를 쓴 특정 무리의 사람들이나 교회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서신서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도들이 쓰긴 했지만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서한들도 있고 그 서한들의 비중과 권위는 서신서들의 비중과 권위와 같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 가는데 필요한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그들이 교회 생활을 포함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바울의 편지들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쓰라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편지들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여러 교회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 이해한 의미와 실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한 예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내가 관찰한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린도전서 7: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말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녀에 대해 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고 다만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썼다. 바울의 의견은 보잘 것 없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그의 의견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온 믿을만한 것이다. 그 의견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가 이르게 된 고매한 영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의견이다. 그는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알고 이해한 대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바울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알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바울이 영적으로 옳지 않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가 말한 의견은 믿을만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쓴 서신서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쓴 서신서들도 특정한 상황들과 그 상황들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들과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따라 기록되었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 지혜와 지식과 그들이 얻게 된 영적 권위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신약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사도들은 위대한 영적 이해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 알리고자 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쓴 서신서들이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셨다.

그 서신서들은 중요한 기록이다. 계시의 중요한 원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사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 우리 삶 속에서 내적인 영적 실체가 양성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과 환경과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언제나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시를 따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야 한다면 그리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교제와 참여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방식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성취해나가는 일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매우 분명한 지시를 받게 된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일은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뿐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리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실천된 진리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섬김을 통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로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영적 생명과 실체를 가지고 진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섬김은 그만큼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삶을 통한 진리의 전달은 말 뿐 아리라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변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대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하고도 삶의 질이나 수준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그런 경험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내적 자질을 키우고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셨던 그 친밀함을 본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슈들을 신중하게 잘 생각하는 것 - 성장 과정의 매우 중요한 한 요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과 실수를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전 과정에서는 오히려 뜻 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매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자체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관련된 문제들을 잘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거나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조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관련된 사안이 중대할 경우 더욱 그렇다.

조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 관련된 문제들과 교훈들을 두루 깊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가 성숙하고 배우는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라신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의 교훈들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기 원하신다. 이 과정을 잘 소화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비록 실수를 한다 해도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가 불러오는 부정적인 결과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일하기도 하신다.

자녀 양육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가? 자녀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보도록 격려해 주고 특정한 범위 안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녀들이 실수를 할 경우에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좀 더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중대한 문제들일 경우에는 부모로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영적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또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영적 수준에서 자라고자 노력하는데 격려가 된다. 또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영적인 지식과 지혜에서 얼마나 잘 성숙하는지는 우리의 자세와 도덕적 자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식과 지혜를 격찬하고 있는 잠언서 1장과 8장을 살펴보자. 잠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잠언 1:1-5, 7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3절). 지혜에는 도덕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고 어리석거나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잠언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잠언 1:24-28, 31, 33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3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경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성숙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성숙하는 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 지혜가 필요할 때만 지혜를 구할 수는 없다. 지혜와 지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숙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없게 된다. 33절은 지식과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몇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잠언 8:8, 12-13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 역시 도덕적 요소가 지혜와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혜는 정의와 분별력과 신중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만과 오만과 사악함과 패역과는 거리가 멀다.

잠언 8:17-21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0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에는 진정한 부와 명예가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장구한 재물과 공의라는 유익이 함께 따른다.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삶은 풍성하고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된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거절하면 죽음과 파멸로 끝나게 된다.

잠언 8:34-36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지혜와 지식 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했다(엡 1:17-18; 골 1:9).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을 내가 언급한 것은 그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의 진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아보기로 하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사소통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그 중요한 한 이유는 의사소통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히브리서 1:1-3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히브리서 1:1-3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자자들을 통해 여러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히 1:3).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실체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하고 순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신적 진리와 실체가 인간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인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성이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적 진리와 실체를 흐리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품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빛과 진리시며 하나님의 본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전한 진리를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시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충실하고 효과적인 대리인이 되길 원하신다. 신성한 삶과 진리가 그 깊이와 그 풍성함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 그 실체가 우리 삶을 통해 표현되고 실현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충실하고 효과적인 대리인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면모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의 참 대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실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배우고 자라고 의미와 생명력과 실체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점차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과 대사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과 생명의 실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11절과 에베소서 3:16절에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

베드로전서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잘 성숙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순간적인 영적 경험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한다면 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한다.

골로새서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서 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신이 어떻게 수고하고 힘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고 수고한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1: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것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방식대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미 있게 수행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27-29절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20:27-29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

요한복음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나타나셨다. 도마가 그 앞에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29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타당한 근거가 없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그저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후 5:7).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눈에 보이는 극적인 영적 경험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지나치게 감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온당치 않은 욕구에 대한 경고
마가복음 8:12절에서 우리는 마음 속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8: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표적을 보고 싶어 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길 바랐다.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12: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마태복음 12: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자.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더 잘 알고 싶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성숙하고 싶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깜짝 놀랄만한 일이나 확실한 무언가를 바라는 온당치 않은 열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밖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것들이나 눈길을 끌만한 극적인 일이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지나치게 감동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의미와 실체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따라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즉 잘 성장하는 것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올바른 태도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참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과 잘 협력하고 있는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참되고 충성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복습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이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덜 극적이고 덜 분명한 방법을 통해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2.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신 방식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라. 그 방식들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3.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효과적인 대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책을 마치며

지금까지 나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주제와 그 주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노력했다.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세속적인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차이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잘못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힘과 능력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열망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헌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말로 강한 사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정말로 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그림은 바로 십자가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방관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애처로운 광경일 뿐이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뇌 속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불쌍하고 처량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십자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다 참으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엄청난 저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모범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의 성품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눈다. 또 성경에 드러난 진리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건강한 영성과 새롭게 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자신을 절제하며 몸과 마음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진리에 순복한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제자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그 길을 간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또 온유하고 겸손하다.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엡 6:10)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삶을 배운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주어진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는 것을 배운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나가며 깊은 삶의 교훈을 배우는 일을 포함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를 소망한다.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용감한 군사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적인 힘과 활력을 가지고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분별하고 대응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점점 격해질 때에도 능히 대처해나갈 수 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강건한 신자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인 교회, 즉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몸에 기여하기도 하고 몸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기도 하면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건강한 교회 생활이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주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힘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한다.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충성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고 경고하셨다.

영적인 능력이나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곧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마 7:22-23).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언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성품을 지니지도 못했다. 베드로 사도는 저주의 자식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말하며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벧후 2:15).

영적인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나 경험에 마음이 끌릴 때 사탄의 속임수와 불필요한 위험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자신에 손상을 가하고 심각한 억압 아래 놓일 수 있다. 특히 불순한 동기가 있거나 좋지 않은 습관이 결부되거나 사탄의 계략을 잘 알지 못할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진다. 그런 영적 경험 때문에 사실과는 달리 자신을 영적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의사소통 방식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그 밖의 다른 확실한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한 의사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방식이 오늘날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식이다. 특히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신다.

덜 극적인 방식의 의사소통 방식은 극적인 방식에 비해 속임수에 현혹되거나 자기 본위라는 위험에 훨씬 덜 노출되는 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그 중요한 한 보호 장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리를 갈망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덜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촉진시키고 영적인 성장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증진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올바른 방식

극적이고 깜짝 놀랄만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현상들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2: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깜짝 놀랄만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성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는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온갖 시련을 감수하게 하시는 주된 이유이다. 그 시련들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약 1:2-4).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잘 반응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다양한 환경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적 힘과 활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과 지식에 제대로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묵상

우리 삶을 돌아보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극적이고 사람들의 눈에 확 뜨이는 그런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속이려 드는 사탄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참 진리와 지식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잘 반응하며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들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내 삶과 내 성품을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지체이며 군사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하고 충성되고 효과적인 대리인이 되는 것을 배우자. 주 안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자.